



KT, VR 상담으로 청소년 고민해결 나서

KT 강북·강원광역본부는 슈퍼VR(가상현실) 등 KT 기술을 활용해 강원지역 '청소년 쉼터'를 찾는 청소년을 6일부터 지원한다. 고정형 쉼터(일시, 단기, 중장기)와 이동형 쉼터(버스)가 있으며 9세~24세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다. /KT



롯데케미칼, 삼성화재와 중대재해 예방 맞선

롯데케미칼이 6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삼성화재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관리 파트너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롯데케미칼 김연섭 ESG경영본부장(왼쪽)과 삼성화재 이문화 일반보험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케미칼



카카오모빌리티, 마카롱·반반택시와 업무협약

카카오모빌리티가 KST모빌리티, 코나투스, 코엑트스와 '택시 플랫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KST모빌리티가 운영하는 '마카롱 택시'와 코나투스 '반반 택시'에 소속된 가맹형 택시 기사들은 '카카오 T 택시'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 왼쪽부터 정원조 KST 모빌리티 대표, 송민표 코엑트스 대표, 김기동 코나투스 대표,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 /카카오모빌리티



동원F&B, 동원샘물 대리점에 친환경 유니폼 배포

동원F&B가 전국 '동원샘물' 대리점에 페퍼트병으로 만든 친환경 유니폼을 배포하고 ESG 경영 강화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배포한 친환경 유니폼은 투명 페퍼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업사이클링 의류로, 유니폼 1벌당 14개의 500mL 페퍼트병이 활용됐다. /동원F&B



일동후디스, 강원FC 공식 후원 나선다

일동후디스가 강원도민 프로축구단 강원FC와 공식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일동후디스 본사에서 체결한 이번 협약은 일동후디스와 강원FC가 상호 존중 및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 진행됐다. 일동후디스 이준수 대표(왼쪽)와 강원FC 이영표 대표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일동후디스

눈을 뜨게 하는 교육, 눈을 감게 하는 교육



이연청 총장의
교육 읽기

인간은 눈을 통해 보고 느낀다. 그러나 눈을 갖고도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사람이 사랑의 눈을 갖지 못하면, 아름다운 것도 슬프고 비참하게 보일 수 있다. 반면, 사랑의 눈을 가졌다면 어두운 것도 밝은 모습이 돼 비치기 마련이다.

인간이 눈을 뜬다는 것은 모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어떤 사람은 끝내 눈을 뜨지 못하고 죽어가는 경우도 있고 눈을 반쯤 뜨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볼 것을 아예 보지 못하거나 미처 다 보지 못한 채 흐릿한 모습의 삶을 살다 간 이들이다.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제각각이다. 매사를 부정적으로만 보는 눈

이라면 '부정의 눈'이고, 지나치게 긍정적인 눈으로만 보는 눈은 '긍정의 눈'일 수밖에 없다.

소년의 눈은 감성적 눈이라면, 소녀의 눈은 야망의 눈일 수 있다. 어린이의 눈은 상대적으로 천진한 눈이기 우리는 어린이의 눈을 사랑한다.

특히 누구에게나 필요한 눈은 '사랑의 눈'이다. 사랑의 눈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물을 볼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사랑하는 마음은 비단 이성간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대상일지라도 아름다움으로 보는 마음일 때 가능하다. 이유나 조건이 필요 없으며 보상이 필요치 않은 마음으로 보는 눈일 때 사랑의 눈이 될 수 있다. 사랑에 조건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소년이 사랑의 눈을 갖고 사는 그 날부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세상의 눈이 욕심과 질투와 미움

로부터 해방될 때 사랑의 눈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삶을 살면서 불행한 세 형태의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다. 첫 번째 형태는 자신이 남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자기를 외로운 존재로 생각하거나 자신을 비하하는 때도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불행한 형태의 인간은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다. 바로 두 번째 형태의 인간으로, 한없는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지속해서 사랑을 찾는 목마름이 끝없는 사람이다. 받고 있으면서도 받지 않는다고 느끼며 사랑의 비교 우위적 관점에서 있는 이른바 '거부형 인간'이 이에 속한다. 자신을 불행하게 느끼고 자신을 고독한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사랑을 받고 있고 사랑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이 형태의 인간은 삶의 과정 중에서도 가장 불행한 형태다. 남에게 사랑을 주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받을 수도 없고 능력이 있음에도 베풀 수가 없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이런 세 번째 유형의 사랑의 문맹자(love illiterate)가 많다는 점이다.

아름다운 삶은 사랑하는 데 있고 사랑을 받고 있음을 깨닫는 데 있다. 넘치도록 많은 사랑과 도움을 받으면서도 사랑을 할 줄도 받을 줄도 모르는 사람은 어디에 있던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사랑의 눈은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가꾸는 데서 시작한다. 사랑의 눈을 갖고 자신을 사랑할 때 인간은 행복해지는 법이다. 그래서 교육은 사랑인 셈이다.

/한양대 고등교육연구소장(석좌교수)

현대차그룹, 美 예술대학과 미래도시 공동 연구

**로드아일랜드 디자인스쿨과 협업
봄학기 4개 분야 프로젝트 공개**

현대자동차그룹과 미국 예술대학 로드아일랜드 디자인스쿨(RISD)이 미래 도시 디자인을 주제로 공동 연구한 협업 프로젝트를 6일 공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해 '미래 모빌리티' 보다 범위가 확장된 '미래 도시'를 주제로 진행됐다. 현대차그룹과 함께 연구를 추진하는 곳은 RISD 산하 '네이처랩'으로 1937년 설립 이후 자연 생명체와 생태계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 깊은 연구활동을 지원해 온 연구기관이다. 다양한 동식물, 곤충 등의 생물표본과 최첨단 연구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유명하다.

RISD는 현대차그룹과의 공동연구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했다. RISD 교수진 5명이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현대차·기아 디자이너들이 연구



현대차그룹과 RISD 구성원들이 미래 도시 디자인을 주제로 공동연구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의 스크린샷

를 지원했다. 치열한 경쟁 끝에 선발된 건축, 그래픽 디자인, 산업 디자인 등 10개 전공의 RISD 학생 32명도 연구자로 참여했다.

공동연구는 올해 2~5월 RISD의 봄 학기 동안 ▲디지털+미디어 ▲산업디자인+건축 ▲일러스트레이션 ▲텍스타일 등 4개 디자인 분야에 걸쳐 진행됐다.

한 미래 도시를 구현할 여러 연구 모델과 시나리오를 제안했다. 이 팀은 미래 사회에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제공할 인프라 환경을 구축하는 디자인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했다.

'일러스트레이션' 디자인 연구팀은 미디어, 애니메이션, 소리 등 시청각적 요소를 활용해 복잡한 도시 속 정보를 명료하게 시각화할 수 있는 여러 디자인에 대해 연구했다. '텍스타일' 디자인 연구팀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직물과 구조물을 디자인하기 위해 인간의 다양한 행동을 분석했다. 지열조 현대차그룹 이노베이션담당 사장은 "이번 협업을 통해 얻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동차 선형 디자인, 스마트 시티 구축 등 실제 사업에 응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미래를 만들어갈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오비맥주 한맥, 쌀 활용 필드아트 선보

충북 제천에 2500평 규모 조성

오비맥주의 '대한민국 대표 라거 프로젝트' 한맥이 쌀을 활용한 필드아트를 충북 제천시에 조성한다고 6일 밝혔다.

한맥은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무더위로 지친 소비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한맥이 사용하고 있는 핵심 재료이자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을 활용한 필드아트를 기획했다. 오비맥주는 쌀에서 얻는 활기와 긍정적인 기운이 국민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필드아트에 담았다.

충청북도 제천에 8200㎡(약 2500평) 규모로 조성되는 필드아트는 일



한맥이 충북 제천에 조성 중인 필드아트

반적인 벼로는 만들 수 없는 다채로운 이미지를 선보이기 위해 형형색색의 유색 벼를 활용했다. 필드아트에는 응원의 메시지를 '대한민국 대표 라거 프로젝트' 한맥의 로고를 중심으로 표현했다. 완성된 필드아트의 모습은 벼가 무르익은 7월 중순에 감상할 수 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인사

-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경제부 차장 겸 좋은일터연구소장 백승현
- ◆아시아경제 △편집국 중기벤처부장 겸 문화레저부장 직대 김민진 △ "사회부 법조전문기자(부장) 최석진 △ "국재부 선임기자(부장) 이진수
- ◆농업경제신문·핀포인트뉴스 △농업경제신문 편집국장 강재규 △핀포인트뉴스 모빌리티부장 김현수
- ◆우먼타임즈 △기획취재팀장 이동림 △금융부 차장 손성은
- ◆토요경제신문 △편집국장 이범석

부음

- ▲구학봉씨 별세, 구경백(일구회 사무총장)씨 부친상 = 6일 오전 11시, 서울 보훈병원 장례식장 3층 5호실, 발인 8일 오전

- 10시. 02-2225-1004
- ▲황정자씨 별세, 염경엽(전 SK 와이번스 감독)씨 모친상 = 6일, 광주 VIP 장례타운 특실 201호, 발인 8일. 062-521-4444
- ▲김호섭씨 별세, 김중현(대한건설협회 홍보실장·기획조정실장 겸직)씨 부친상 = 6일 국립경찰병원 장례식장 특1호, 발인 8일. 02-431-4400
- ▲송영자씨 별세, 조영훈(광주 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씨 모친상 = 6일 오전, 광주 동구 금호장례식장 특실 301호, 발인 8일 오전 8시, 장지 전남 보성군 겸백면 선영. 062-227-4010
- ▲김분영씨 별세, 정일호(VICT ENG CO 베트남 대표이사)·동호(오성교역 이사)씨 모친상, 권중원(흥국화재 사장)씨 빙모상 = 6일 오전 9시42분, 서울성모장례식장 13호실(02-2258-5925), 발인 8일 오전 7시10분, 장지 경기도 양평군 갈말사